

유 학 보 고 서



구 분	유학 (V) 단기연수 ()
파 견 대 학	청도이공대학
파 견 기 간	2017.02.25. - 2018.01.31.
학과 및 학년	사학과 4학년
성 명	성 면 섭
제 출 일	2018.02.02

- * 유학보고서는 해외파견 유학/연수 참가를 입증하는 자료이며, 앞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해 기록되는 자료입니다. 유학에 관련된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 파견대학 및 유학관련 사진(파견대학/기숙사내부 등)을 반드시 첨부하기 바랍니다.

1. 파견대학 및 날씨, 음식, 지역 등 소개

학기시작: 2017.02.25. / 2017.08.28.	학기종료: 2017.06.22. / 2017.12.21.	방학: 2017.06.23. ~ 08.27. / 2017.12.22. ~
------------------------------------	------------------------------------	---

학교주소: 山东省 青岛市 市北区 抚顺路16号 青岛理工大学市北校区

제가 유학한 청도이공대학은 칭다오시의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서, 칭다오 맥주박물관이나 오사광장 등 칭다오의 유명 관광지와의 접근성, 공항이나 기차역, 장거리버스터미널 등과의 접근성 역시 뛰어난 곳에 있습니다. 청도이공대학은 시북구 캠퍼스, 황다오 캠퍼스 등 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 현재 네이버에 제공되는 청도이공대학 금도학원은 칭다오시 내의 또 다른 청도이공대학으로서, 이 곳은 사립학교입니다.)

청도이공대학 시북구 캠퍼스의 모든 유학생 수는 약 10명 내외로,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많이 적습니다. 이공대의 시북구 캠퍼스에는 이공계열의 학과들과 미술계열의 학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건축과가 가장 유명합니다.

칭다오는 한국인이 유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봄과 가을은 한국보다 조금 길고, 여름은 비교적 시원하며, 겨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춥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역시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 말 할 수 있는 수준이며, 한국보다도 미세먼지가 적은 곳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칭다오까지의 비행시간은 인천공항 기준 약 1시간, 김해공항 기준 약 1시간 30분이기 때문에, 다른 중국의 도시들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칭다오는 비교적로 儿화가 많이 발달한 도시이다 보니, 칭다오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교에서 배운 표준어를 잘 구사한다면, 일반인과의 대화가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칭다오는 바다와 인접해 있는 도시로서, 도시 곳곳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칭다오 음식들이 한국인들의 입맛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 음식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칭다오에는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리불고기, 생선회, 삼겹살 등 다양한 한국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칭다오에서는, “喝啤酒, 吃蛤蜊”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지락 요리와 맥주가 유명합니다. 과거 독일인에게 전수받은 맥주 양조 기술로 빛어진 '칭다오 맥주'와 싱싱한 '바지락 볶음'은 칭다오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남대의 경우 1년 동안 교류유학을 다녀오기 때문에, X1비자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 중국 도착 후 30일 내로 거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류증 발급이 끝나면 기간 만료일 전까지 무제한으로 중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2. 학과 및 수업소개 (현재 이수학점, 과목수강의 난이도 등)

청도이공대학으로 교류유학을 오신다면, 청도이공대학 국제학원 소속으로 다니게 됩니다. 아침 8시 30분 부터 11시 40분까지 수업이 진행되며, 월화수목금 매일 수업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초급, 중급, 고급이 있으며, 학교 수업 첫날 중국인 선생님과 대화 등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본인이 들어야 할 반이 결정됩니다.

초급반 수업은 말하기, 듣기, 종합, 총 3개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중급반 수업은 말하기, 듣기, 읽기, 종합, 총 4개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이공대를 다니는 1년 동안 고급반은 열리지 않았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본과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학점은 1학기당 12학점, 1년에 총 24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체계적이지 못한 유학생 관리 시스템입니다. 다른 칭다오 소재의 학교인 중국해양대학, 청도대학에는 수많은 유학생들이 존재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공대의 유학생의 수는 약 10명 내외이고, 그중 한국인이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유학생으로는 러시아, 이탈리아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류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다른 학교를 다니길 추천 드립니다.

장점은 10명 내외의 적은 유학생 인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생의 수가 적기 때문에, 수업 진행이 소수 정예로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중국어를 1도 배워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처음부터 배운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중에 조선족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시는 날이면 매일 1시간이상 성조 교정을 시켜주시고, 이 성조 교정은 기말고사 전날까지 계속되었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바로 학교 주변에 외국인, 특히 한국인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해양대학이나 청도대학의 경우 주변에 한국인 거주지역이 있고, 한국인 거주지역과 크게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공대의 경우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모두 이공대의 학생들 또는 이공대에서 강의를 하시는 광운대학교 교수님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과의 교류가 많고, 중국인 친구를 사귀기 편합니다.



< 초급반 교실 뒷 모습 >



< 중급반 교실 옆 모습 >

3. 기숙사 및 유학생 현황 (기숙사 숙소 및 사용요금을 정확하게 기재, 기숙사 사진 첨부)

유학생의 인원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국제학원 소속의 유학생을 제외하고 또 다른 유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인 유학생들로서 청도이공대학 건축학과 소속의 본과 학생들입니다.

이공대의 유학생 기숙사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네이버에서 청도이공대학을 검색하신 후, 대부분의 블로그에 나오는 기숙사의 사진 등은 청도이공대학 금도학원의 사진입니다. 제가 있었던 이공대 숙소의

사진을 보고 싶은 분들은 '2014-2015년 교류유학 후기'의 청도이공대학 후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공대로 교류유학을 오신다면, 학교에서 약 7분 거리의 작은 호텔에서 유학생생활을 보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약 3분 거리의 아파트에서 유학생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약 1분거리의 아파트에서 유학생생활을 보냈었습니다. 호텔 생활은 1인 2실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아파트 생활은 1인 1실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활했던 숙소는 방 2개, 거실, 화장실, 부엌 각각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용했던 방의 경우, 다른 모든 유학생들의 방에는 없는 특별한 공간, 바로 앞마당이 존재했었습니다.

한남대 학생들의 경우, 기숙사비가 면제입니다. 또한 숙소 생활에 있어서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은 모두 이공대에서 모두 지불해줍니다. 숙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사용한 숙소 등 아파트에서 유학생생활을 보낼 경우, 인터넷이나 전기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단, 호텔에서 유학생생활을 보낼 경우, 인터넷의 속도가 많이 느리고, 겨울에 많이 춥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 1년동안 살았던 방의 사진 >

4. 식비, 용돈, 책, 핸드폰 등의 기타 생활비(학비와 기숙사비를 제외한 소요비용)

대체적으로 중국의 물가는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야채, 해산물 등의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수입제품들은 보통의 중국산 제품에 비해 좀 비쌉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화장품 가격의 경우, 한국보다 중국에서의 가격이 많이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미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집에서 요리를 직접 해먹을 때도 있었고, 밖에서 사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요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료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공대 기준으로 남쪽으로 약 10~15분 걸어가면 까르푸가 존재하고, 서쪽으로 약 5분 걸어가면 동네 전통시장이 매일 열립니다.

학생식당을 이용하시려면, 이공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 뒤 교직원용 식당카드를 받으신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카드 보증금은 50위안이고, 학생식당 1층에서 돈을 충전시킨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학기 초반에 몇 번 사용했었습니다.

학생식당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큰 건물입니다. 학생식당의 음식이 맛있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나마 3층 식당의 음식이 학생식당의 음식들 중 가장 맛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식당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부분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입맛에는 학생식당의 음식이 전체적으로 맛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학교 밖의 가게에서 밥을 사먹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앞에 노점상들이 줄지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단속 때문에 학교 앞에서 노점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노점상을 찾고으신 분들은, 점심시간에는 학교 근처 서브웨이 매장 쪽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가도로 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끔 노점상들이 단속을 피해 장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재비는 본인이 어느 반에서 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

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내에는 中国联通과 中国移动, 두 통신사의 영업점이 존재합니다. 저는 中国移动에서 유심을 개통했었습니다. 처음 개통시 200위안을 충전했었고, 매달 약 35위안을 지불했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요금제의 내용은 성내 데이터 1G, 국내 데이터 100M, 무료 국내통화시간 50분, 학교 내 데이터 10G, 학교 내 무료통화시간 150분이 제공되는 요금제였습니다. (* 간혹 中国移动에서 유심을 사고 데이터 사용 시, 4G가 안 뜨고 그냥 G라고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과감하게 中国联通에서 새로 유심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 방법이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교통비의 경우, 칭다오시 버스 기본요금이 1위안입니다. 하지만 청양구 한인타운이나 라오산 등 멀리있는 곳은 거리마다 버스 요금이 다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칭다오시의 지하철은 2018년 1월 기준, 3호선 전 구간과 3호선 일부 구간, 황다오 구간만 개통되어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2 ~ 4위안입니다. 참고로 학교 근처 삼거리(抚顺支路)의 근처에 교통카드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중국의 버스는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5. 이 학교를 선택한 후배들에게(장단점 등)

이공대를 다니다 보면,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인원이 적다보니 소수정예로서 과외처럼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수업 설명을 하시는데,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쉽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 중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에는 당연히 중국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중국어로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다보면 어느 순간 선생님들의 말씀이 대부분 잘 들리는 기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공대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 주변에서 한국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인 학생들과 매일 다니며 학교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학교 내 중국인 친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점상을 포함한 많은 가게의 단골손님이 되었고, 가게 사장님들과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어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로 저는 중국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그 돈으로 31일 동안 쉬지 않고 중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지역의 손님들을 만났고, 여행을 다님으로서 많은 지역의 사투리를 들었으며, 많은 관광지나 역사유적지를 다녀왔고, 칭다오를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 학교 내에서 중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다면 중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중국에서만 중국어를 배웠고, 한국에서는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공대의 유학생 수가 적은 부분이 저에게는 아주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 그 덕에 중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솔직히 본인의 중국어 실력이 HSK5급 이상의 실력이라면, 이 학교로 오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고급반이 개설되어있지 않고, 대부분의 유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이 중급반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칭다오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도 거의 없는 맑은 도시이며, 산과 바다의 물 역시 맑은 곳이자, 한국과의 거리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자체도 깨끗하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행지로서의 칭다오도 좋지만, 1년 동안 살 곳으로서의 칭다오 역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의 교류유학 생활이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보다 칭다오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칭다오가 본인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만큼 칭다오를 사랑하는, 그런 변화된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2017년 1학기 당시 모든 한국인 유학생 >



< 소어산 공원 전망대에서의 사진 >



< 저장루 천주교당 근처 >



< 칭다오 맥주박물관의 맥주 >

6. 유학생할을 마친 소감

1년간의 유학생살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 중국에 갔을 때에는 설레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과 마카오, 광저우 여행을 다녀온 후, 갑자기 늦은 향수병이 생기면서 약 1달 반 정도동안 힘들었습니다. 종강 후 잠시 3주정도 한국에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니, 그 이후부터는 향수병이 완전히 사라졌고 처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남은 중국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 사실 중국 교류유학에 대해 1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교류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던 학과 선배님들과 2016년에 우연히 다녀온 하계 단기어학연수에서 만난 룸메이트 형을 통해 조금씩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귀국 후 알아보니 저에게 있어서 당시 신청이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교류유학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원하였고, 결국 칭다오로 교류유학을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입생 때부터 교류유학을 신청하는 순간까지, 당시 학과장 교수님께서 교류유학에 대한 장점 등을 설명해주시면서 적극 추천해주셨습니다.

사실 단기어학연수 때에도 중국어를 배워봤지만 본격적으로 배운 중국어는 칭다오에서 배운 중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HSK 5급의 수준까지 저의 중국어 실력이 올라갔고, 이렇게 실력이 올라갈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공대에서의 수업과 많은 도시로의 여행, 아르바이트 경험이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는 동안 많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에, 중국으로의 출국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홍콩, 마카오, 베이징, 허페이, 시안, 상하이 등등 약 12개의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닌 여행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중국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8시간씩, 주말시간과 종강 후에는 10시간씩 일을 했었고,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서, 결국 1월 3일부터 귀국 전날 까지 10개의 도시를 쉬지 않고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 칭다오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택시를 주로 이용했었고, 택시를 타면 매번 택시기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학교 주변에 외국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게에서 저를 알아보았고, 혼자 가게

에서 밥을 먹으면 직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한 대형마트의 푸드코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같이 일하는 가게 직원들, 주변 가게의 직원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따로 학교 내에서의 중국인 친구들을 만든 적은 없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학교 외에서의 노력을 통해 중국어 실력을 키워나갔었습니다.

1년간의 교류유학 생활은 저에게 있어서 다신 오지 않을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국에만 있었다면, 전 아마 중국어에 대한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여행일지라도 자주 중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중국에서 공부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